

농어촌공사 영주·봉화지사, 수해복구 작업 동참

류효환 기자 | 승인 2023.07.25 14:35



(봉화=류효환 기자)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(본부장 하태선)와 영주·봉화지사(지사장 조창영)는 7월 24일 영주시, 봉화군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찾아 수해복구 작업을 합동으로 실시하였다.

이날 경북지역본부 및 영주봉화지사 직원 30여 명은 영주시 부석면 노곡리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해 과수원으로 유입된 토사를 제거하였으며, 봉화군 물야면 오전리 피해 농가를 찾아 침수 가구를 정리하고 매몰된 수로관의 준설 작업을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수해복구 활동을 벌였다.

이에, 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 조창영 지사장은 “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, 앞으로 다가올 장마와 태풍에도 철저히 대비해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